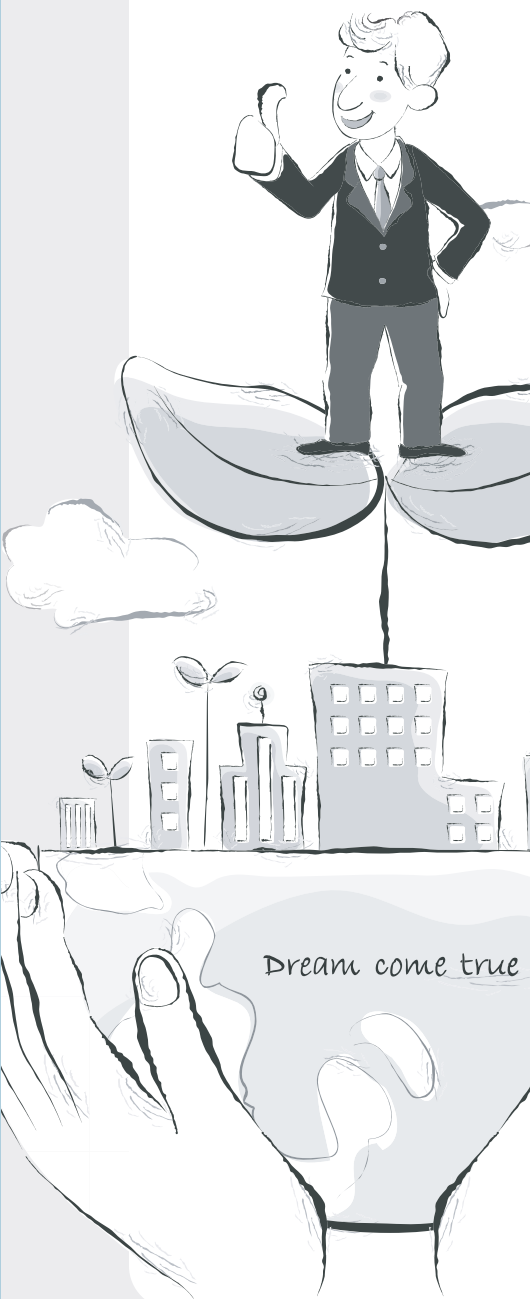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에 대한 소고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 한 승 철



I. 서 론

2009년 경제가 문제다. 새 정부 출범이후부터 경제가 국가나 지역 할 것 없이 최대 화두가 되어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그 어떠한 경제정책도 무색케 할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1930년 대공황과도 견줘지기도 한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제주경제의 성장경로는 아는 바와 같이 10년 넘게 저성장 저고용 행태를 보여 왔다. 제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다라도, 1995년까지는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는 하향 추세를 보여 2006년 현재 0.86%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경제 규모의 영세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차산업과 관광 등 단순한 산업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2008년 벽두에 신경제혁명이란 계획이 마련되었다. 제주경제의 활로를 찾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전략이었다. 즉 제주적 환경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내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실용경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제주, 10년 후 먹고 살 신성장 동력산업을 모색하고, 한편으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

감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신경제혁명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제주관광의 고비용, 불친절 해소 등을 통한 관광객 7% 성장 등 그 성과가 없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신경제혁명을 추진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 대다수는 제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역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좀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인력들은 무직자로 전전하고, 일자리를 찾아 출향하고 있으며, 한 번 떠난 제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빨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생적으로 혹은 외생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내생적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와 같이 수도권에 비해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외생적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투자유치 혹은 기업유치가 바로 그것이다. 제주지역의 기업 경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제기반산업이 부족한 실정으므로 새로운 기업 창출과 경쟁력 있는 경제 환경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신경제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의 미래비전 중에 산업구조 개편

이 포함되고 있는데 제조업 10% 확대를 위해서 외생적 정책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문제는 산업의 문제' 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II.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1. 투자유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한해 동안 총 32개 사업 3조8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 위주의 단순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선 복합휴양리조트, 외국 박물관, 테마파크 등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 인센티브 강화,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투자유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친김에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언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4년째를 맞아 내년,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자 위주의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중점 유치사업을 선정, 특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민간자본 20억불 신규유치와 이미 투자의사를 밝힌 20억불에 대한 투자실현이라는 'Twin-Twenty' 달성을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중국 동남아 등 화교권 자본을 집중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조기지정, 외국인투자 감동서비스 제공, 투자여력 국가의 우량기업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투자유인시책을 발굴 시행한다. 잠재 투자기업의 집중적 관리를 위해 동남아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키로 하는 등 적극 행보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내년에는 8개월 이내로 최대한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 시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우리의 수용태세가 관건이다. 투자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혹은 각종 조세 및 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잠재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도민과 행정기관의 서비스 등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 하나 굳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투자유치가 관광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투자유치 할 때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는 제조업 유치도 하나의 아젠다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 관광, 의료, 교육 쪽에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조금만 더 얹어서 외부 기업유치도 좀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 기업유치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서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유치 전략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 지역에 어떠한 기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정책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다. 지역산업 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유치는 지역 내 고용 증대 효과, 지방세수 증대 효과 등을 발생시킨다. 지역 내 기업의 유치는 자본의 유입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의 생산과 그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제주에 적합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목표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치기업의 고용효과는 눈부실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다음과 키멘스전자(주), (주)성도그린 등 수도권 이전 3개 기업은 701명을 고용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주)다음이 520명, 키멘스전자(주) 165명, (주)성도그린 16명 등이다. 지난 2004년부터 제주도로 이전한 (주)다음은 2006년 글로벌미디어센터(기업부설 미디어연구소)를 이전, 1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검색 품질관리, 유해콘텐츠 차단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다음서비스를 설립, 34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 규모가 도내 H병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자금융자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유치와 관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2004~2008년 지역별 기업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3건



에 그치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 있겠지만 혹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취약함을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환경을 고려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의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 인프라(물류, 생활 인프라 등), 소프트 인프라(정보, 교육, 제도, 노동, 인력, 언어, 문화, 습관 등)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생활 여건과 사업자 서비스 등 사업 환경이다.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서비스 제공, 산업인력의 훈련 및 재교육 실시, 수출시장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개발보조, 개발권 부여, 부동산관리 서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등 적극적인 수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제 언

신경제혁명 2차년도인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유치 속에는 기업유치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지금까지 기업유치라는 말보다는 투자유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행정마인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기업유치라는 말은 따로 떼 내서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담기구의 부재와 기업유치를 위한 전문요원 및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유치활동과 투자지원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마인드의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지역의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새로 만들고, 수정하는 것에 치중해왔다. 이제부터는 유치활동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유치활동기간 설정, 기업물색, 기업접촉방식, 기업유치활동, 기업지원방안 등 과정별로 매뉴얼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전략의 개념적 틀 마련을 비롯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비전, 목표, 유치전략 등 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적 계획의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선 기업 이외의 지역의 모든 구성체들의 합의와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실행프로그램에는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발송을 통한 유치 설득을 해야 하고 인센티브 설명을 통해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업인의 마음을 흔들

어놓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인맥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접촉의 기회를 넓혀 나가야 한다.

제주도정에서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는 투자유치과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관광관련이든, 일반 기업체든 지간에 모두 투자유치과에서 처리해왔다.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유치 실적이 낮은 이유는 투자유치과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국내에는 수만 종의, 수만 개의 기업체가 산재하여 있다. 제주도정에는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지역에 산재한 관련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기업유치는 타 부서의 소관이라고 치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도정 전반에 걸쳐 관련기업유치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부서별로 관련 있는 기업을 물색하고,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수축산국의 경우 농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업체 등을 유치하면 그게 기업유치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양배추나 브로콜리 가공에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양배추 브로콜리 과잉생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청정환경국은 생활환경이나 녹지환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지역에 산재한 관련 기업과 접촉을 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해양수산물도 수산가공기업들을 유치하면, 그게 기업유치가 될 것이다.

이처럼 도정 전체의 부서에서 관련 기업의 유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하다. 기업유치를 위한 각 부서의 아이디어 발굴 등 세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예상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투자가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매년 투자유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몇 십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창원시의 예처럼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반 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제주, 잘사는 제주미래의 파트너는 기업인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도민 모두가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맨 화하는데 기꺼이 나서야 한다. 각종 매스컴을 통한 유치활동과 투자 세일즈팀 구성 파견 등 해볼 만한 노력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

유치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도 운용하고 있다. 기업유치가 결정되어 공장이 준공된 후에도 종전과 변함없는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 기업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기적인 산업인력수급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끝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도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도시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도시의 모델을 보는 중에 이 모델이 우리 제주도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